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융복합과 기독교학문

2015.11.7 (토)

오전 10시~오후 6시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대학원 및 분과별 발표논문 모집

학회 주제와 관련한 논문이 우선발표권을 갖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학술대회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감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 제한이 있습니다.

발표신청마감일 : 9/21(월), 논문제출마감일 : 10/12(월)

접수처 : 홈페이지 오른쪽하단 신청버튼 (접수시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 » 대학원생 발표논문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을 선정, 우수논문생(상금 및 상장)을 수여합니다.
- » 20,000원 (학부 및 대학원생 10,000원), 신청은 당일 등록대에서만 접수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02-3272-4967 (담당 신호영)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QR코드로 바로가기 >>

비판적 소비

내가 아는 한 젊은 교수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제조사의 전자제품을 쓴다. 값이 싸고 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유명 제품들의 제조회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들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의 그런 소비행태를 높이 평가한다. 만약 우리 사회의 소비자 상당수가 단순히 질 좋고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품 생산자와 생산과정의 도덕성을 고려해서 상품을 구입한다면 불량품도 줄어들 것이고 사회 전체의 도덕성도 높아질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할 정도로 자급자족했다. 스스로 농사지어 먹었고 길쌈해서 입었다. 물론 시장도 있었고 매매도 이뤄졌으나 지금에 비하면 그런 매매가 차지하는 정도와 중요성은 미미했다. 그러나 사회가 다양화되고 분업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소비한다. 따라서 소비에서 다른 사람이 중요해지고 이해관계가 생겨난다. 세계화가 진척되어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소비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급자족이 많이 이뤄졌을 때나 가족 혹은 잘 아는 사람이 쓸 물품을 생산할 때는 속이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따라서 상도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오늘날에도 생산자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킨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고 실제로 그런 생산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려 할 것이므로 정직한 생산자는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가능한 한 질 좋은 상품을 정직하게 생산해서 가능한 한 값싸게 판매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면 스미스(Adam Smith)가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질 좋은 물건이 값싸게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돈에 쫓겨 오는 오늘날 세계에서, 특히 대형투자자와 큰 이익이 좌우되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이성과 양심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만 속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정직해지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역시 비도덕적이면 손해를 본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정직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엄격한 법과 공정한 법 집행이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적인 소비문화다. 상품 생산자에게는 법보다 소비자의 반응이 더 무섭고 더 큰 압력이 된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생산자는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우선 자기에게 필요한지, 질이 좋고 값이 싸지만 따진다. 그리고 생산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들 가운데는 생산품의 원료와 생산과정의 도덕성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사회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없지 않다. 오직 자기 편의와 이익만 챙기는 무책임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생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무책임한 소비는 무책임한 생산을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에게 당장 필요하고 값이 싸다 해서 상품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 재료와 물건 혹은 서비스가 사람과 환경에 해롭지 않은지, 그 제조과정에서 법을 어겼거나 근로자를 착취하고 다른 업체에 불공정

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개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므로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기관의 조사발표와 언론보도에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물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주리고 입을 것이 없어 떠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앞에 언급한 짧은 교수처럼 비판적인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량상품과 서비스가 사라지고 비도덕적인 경제활동이 제재를 받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때 미국과 유럽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의류생산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된 의류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거대 기업의 노동력 착취방지와 방글라데시의 인권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도 약한 나라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적 착취에 어느 정도 제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의식이 깨인 시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 비판적 소비활동을 펼치면 경제활동이 정의롭고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책임 있는 모든 소비는 공익에 이바지한다.

불편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값싼 옷을 사지 않으며, 맛있는 고급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절제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불편과 손해 없이 세상을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불편과 손해는 그 결과로 생겨나는 이익에 비하면 큰 희생은 아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작은 희생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의무와 특권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비판적 소비를 실천하면 사회의 도덕성이 한결 높아질 수 있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인양생명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화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 『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SEPTEMBER · 2015



WORLDVIEW

2015년 9월호 WORLDVIEW 통권 183호



표지인물 John Witte, Jr.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세상 속, 부르심에 힘입어_John Witte, Jr.

- SPECIAL**
- 02 대표주자 비판적 소비_손봉호
 - 18 기획칼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문화소비자_강진구
 - 22 기획칼럼 착한 소비, 착한 수입, 공정무역_김태항
 - 26 기획칼럼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소비 비결_조성표
 - 30 기획칼럼 디제잉 워십,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_윤성현
 - 34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COLUMN 36 메디컬칼럼 Cure & Care 저산소증의 기억_최현일

- CULTURE**
- 40 땀복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변질 간의 전쟁, 이슬람 전쟁
 - 50 편집#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 52 유머 잘못된 주소_손봉호

BOOK REVIEW 42 서평 위로받은 성도의 삶_안명준

- NEWS**
- 50 사무국 뉴스
 - 51 9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보조 이종원
사 진 장형규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거진 m.worldview.or.kr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최고의 법사학자, 존 위티(John Witte, Jr.)를 만나다

세상 속, 부르심에 힘입어

번역 · 정리_백은석 교수

기독교 법학(Christian Legal Studies)의 최고 석학인 미국 에모리대학의 존 위티(John Witte, Jr.) 교수가 한동국제 법률대학원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행사와 기독교법률가회 및 한국법사학회 등에서 강연하였다. 위티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 은사인 해롤드 버만(Harold Berman)¹⁾교수와 함께 주류 법학계의 관심 밖에 있던 “법과 종교”(Law and Religion)를 법학 연구의 주요 분야로 정착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이 근대 법·정치사상의 형성에 끼친 근원적 영향을 연구한 기념비적 저술²⁾을 다수 남겼다. 에모리대학 최고 영예인 우드러프 교수직과 맥도날드 석학 교수직을 겸임하면서 같은 대학 법과종교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를 이끌고 있는 위티 교수를 한동국제법률대학원 교수들이 만나 대담했다.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하 HILS):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탁월한 법학자이신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월드뷰> 독자들을 위해 교수님의 신앙적 배경, 교육과 학문여정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존 위티 교수(이하 Witte): 부모님은 195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캐나다로 이주하신 화란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 분들이셨지요.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문답식 교리교육을 받았고, 개혁교단소속 초·중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는 삶의 근본이며 기독교 세계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사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성장한 배경인 개혁신앙은

카이퍼주의(Kuyperianism)라고 불리는데, 영역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모든 부분에 관한 그분의 뜻이라고 여기고 어떤 관점이든 그 이면에 작동하는 세계관을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는 전통입니다. 이후 미시건 주 그랜드래피즈에 소재한 칼빈대학교에 진학하여 역사와 철학 등을 공부하며 문명형성에 기여한 기독교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통해 관련 주제들에 접근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듯하여 예일대학교 법학/역사학 연계박사과정으로 진로를 정했지요. 역사학부의 스티븐 오즈맹 교수³⁾의 지도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분이 하버드대학교로 옮기시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법학과 역사학 연계과정⁴⁾이 개설되어

1) 저명한 법학자 해롤드 버만(1918-2007)은 하버드 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에서 60여 년간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서양법의 연원을 종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하여 “법과 종교” 분야를 개척하였다. 주저로는 *Law and Revolution I: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법과 혁명 1: 서양법 전통의 형성』 김철 역, 한국학술정보, 2013),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법과 혁명 2: 근대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 한국어판 출간예정), *Faith and Order: The Reconciliation of Law and Religion* (Wm. B. Eerdmans, 1993) 등이 있다.
2) *The Reformation of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권리와 자유의 역사』 정두메 역, IVP, 2015), *Law and Protestant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등이 대표적이다.
3) 국내에 소개된 스티븐 오즈맹 교수의 저서 중에는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프로테스탄티즘: 혁명의 태동』 박은구 역, 해안, 2004)이 잘 알려져 있다.



있지 않았거든요. 고민하던 중, 하버드 로스쿨의 해롤드 버만 교수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학부 때 그분의 글을 많이 접했거든요. 버만 교수는 장문의 회신을 보내 주시면서 당신의 연구조교로 일할 것을 제안하셨고, 이후 3년간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면서 매주 48시간씩 그분과 같이 “법과 종교”와 관련된 연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유태인으로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시며 기독교로 개종하셨던 본인데, 법과 종교 및 서양문명의 상호작용에 관한 근본적 질문들과 씨름하며 “법과 종교” 분야를 개척하시던 거장의 발치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고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5년 하버드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버만 교수님을 당시 초창기 법과 종교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에모리대학교로 옮긴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HILLS: “법과 종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법사학자로서 혼인법과 가족법, 종교자유 및 인권 분야에도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두 분야가 교수님의 학문적 관심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Witte: 종교개혁은 서양사의 주요 이음매(seam) 중 하나로서 변혁의 시기(transformative moment)였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법학을 공부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이 법과 정치 및 사회에 끼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16세기에는 혼인과 가족이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혼인을 성례로 보아 가톨릭 교회법원의 관할권 하에 두고 복잡하게 규율하고 있던 종전의 접근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헨리8세와 교황청의 마찰, 마틴 루터의 교회법서적 소각사건, 칼빈의 혼인조례 개정 모두가 이 문제와 연계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고, 버만 교수님의 연구조교 시절과 이후 학자로서의 첫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은 삶의 근본적 주제이면서 국가와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 차원과 세속 차원의 교차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4~17세기 혼인과 가족제도의 변천사를 연구하면서, 주제의 성격상 해당 시기 이전의 고대사료와 성경자료뿐 아니라 해당 시기 이후 여러 변혁의 시기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계몽주의 시기와 현대성혁명(modern sexual revolution) 시기까지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서구전통의 기반을 이루는 근본제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현실과 논의는 이러한 전통과 비교할 때 혼인의 존재론적, 목적론적 풍성함에 있어 빈약하기 그지없다고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도 종교개혁에 관한 저의 관심에서 비롯된 세부주제라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강연에서 다루었던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De Libertate Christiana, 1520)』는 당시 스콜라신학과 가톨릭교회에 의해 자행된 양심과 개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침해를 지적하며 자유를 부르짖는 글이었습니다. 저의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서구의 권리담론 전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으며, 종교개혁이 서양사의 주요 이음매를 형성하는 변혁적 시기였음을 재확인케 되었습니다. 또한, 혼인법 연구에서도 그랬듯이, 연구대상에 노예와 어린이, 고아와 과부의 권리에 관한 성경적

자유론의 발달과정도 포함하게 되었고, 개혁기 이전 로마(사)법과 중세 교회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교부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형성된 가톨릭 전통의 유산을 분명한 성경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성경적 근거 위에 재구성함과 동시에 자신들만의 기여를 새롭게 하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 시대와 현대에 이르는 개혁기 이후의 인권논의 전개 과정에도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 주제도 삶의 본질적 측면에 관한 것인데, 저의 학문적 관심은 신앙(faith), 자유(freedom), 가족(family)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이 모두를 연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HILLS: 교수님의 전공분야 중 혼인법/가족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혼인관계의 법적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는지요?

Witte: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기존의 희랍-로마전통과 유대교전통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했던 시기에는 이미 이성간 그리고 일부일처간의 연합을 유효한 혼인관계로 보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전통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면서도 이성간의 일부일처혼인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 기독교는 기존의 전통에선 볼 수 없던 복음서와 바울서신서에 등장하는 특징적 요소를 추가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선, 배우자간의 상호성을 강조했지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배우자 상호간의 성적 의무를 위시하여 서로의 희생을 요구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은 당시 가부장적 이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둘째, 부부관계의 신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로마법과 유대법이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것을 문제시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거

하여 기독교전통은 음행/간통이나 처자유기 등의 극히 제한된 예외적 경우(고린도전서 7:15) 이외에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을 상징하는 영구적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독교는 육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기 몸의 성적 표현에 본질적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방임적 성생활과 동성행위를 비롯한 여러 성적 표현들을 용납했던 당시 희랍-로마문화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었지요. 셋째로 상호성과 신의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독교가 혼인법/가족법에 기여한 바는, 상속권을 특정 자녀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생존 배우자에게 분산토록 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가 출생 순서로 권리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음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혼인법/가족법과 관련해 기독교와 기존 전통과의 관계는 연속성과 불연속성 양면이 모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HILLS: 오늘날의 혼인법과 결혼에 관한 이해는 희랍-로마시대나 중세교회의 혼인관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Witte: 결혼과 가족에 관한 서양의 법과 도덕적 전통을 살펴보면 변혁의 이음매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4세기와 5세기에는 로마제국과 로마법의 기독교화로 인해 혼인법/가족법이 극적인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12세기와 13세기는 버만 교수가 “교황 혁명(Papal Revolution)”이라 불렀던 변혁의 시기로, 가톨릭교회가 혼인제도의 관할권 등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종교개혁 시기에는 교회와 국가가 협력관계에서 결혼제도를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결혼무효화 등에 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결혼에 관한 한 보다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18세기와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결혼의 중요성에 관한 본질적 이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교회와 종교적 유산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제도의 형태와 성격, 목적에 관하여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전통적 견

해를 유지하면서, 결혼을 공동체 내에서 사적 유익과 공적 유익 모두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제도로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과 가족관의 본질적 변화와 단절은 1960~1980년대를 거치며 일어나는데, 가히 성과 이혼의 혁명기(sexual and divorce revolution)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을 비롯해서 과거로부터 전수된 것을 과격하게 부정하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거부하며, 개인의 선택을 숭상하고, 성적욕구충족을 앞세웠던 시기로 가부장주의 또는 온정주의에 근거한 여하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몸을 성적으로 해방하고자 했지요. 유럽과 미국의 성적혁명(성적혁명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데,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기본권 관련 결정들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하겠습니다. 1965년 Griswold v. Connecticut⁴⁾과 1973년 Roe v. Wade⁵⁾등이 성적 행위를 개인의 사적 선택의 영역에 두고 개인의 자율성(authonomy)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로만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교회를 비롯한 공적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혼의 급증으로 이어졌는데, 배우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가능케 한 무과실일방이혼(unilateral no-fault divorce)제도의 영향이 지대했었다고 봅니다. 이 법을 채택하는 주들이 늘다가 급기야 1985년에는 미국 전역의 통일법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인종그룹에 따라서는 40~71%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마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만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게 된 듯합니다. 또 결혼의 지체도, 유익함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부담만 느끼는 것으로 특히 결혼을 하면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자신의 결정권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성적 자유가 초래한 심각한 사회·심리적 병폐들을 인식하면서 최근에는 결혼을 장려하려는 노력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보이지만 그간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HILS: 교수님의 저서 중 서양혼인제도의 변천사를 개관한 『From Sacrament to Contract』가 국내에도 번역·소개되어 있습니다.⁶⁾ 이 책에서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결혼관이 계몽주의와 함께 어떻게 서양혼인가족법의 사상적 간격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서술하면서, 혼인제도를 영적, 사회적, 계약적 그리고 자연적 측면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복합체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타까운 결혼의 현주소를 미국의 예를 들어 잠깐 언급하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오늘날 결혼관의 가장 본질적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Witte: 서양혼인법의 역사를 보면, 고대 희랍-로마전통과 유대교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가 중세와 종교개혁기를 거쳐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결혼의 존재론적·목적론적 깊이를 더하여 매우 풍성하고 두터운 개념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혼인법은 이러한 다차원적 결혼관 대신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결혼제도의 일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4)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 부부의 피임약 사용을 규제하던 코네티컷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으로서, 이를 근거로 수년 후에는 부부사이 뿐 아니라 혼외성관계자와 미성년자의 피임약 사용권리도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5) Roe v. Wade 사건: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인간/생명으로서의 태아를 보호할 권위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낙태 규제를 기본적으로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6) From Sacrament to Contract: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Second ed. 2012); 『성례에서 계약으로: 서양혼인법의 역사와 신학』 정경화·유금주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6)



결혼을 성례로 보았던 중세 가톨릭교회는 결혼제도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혼인제도와 관련된 교회의 권한도 확장하였습니다. 이어진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자들은 가톨릭교회가 국가의 관할권까지 침탈한 것과 금욕적 독신주의를 결혼생활보다 우월한 가치로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게 되지요. 마틴 루터는 가족과 교회 및 국가를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 자연 질서의 한 부분이며 유기적 사회체제로 보고 이들 3자간의 관계 위에 사회구조를 세워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남녀간 결혼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반을 놓았고, 성직자도 가정을 이루어 평신도들의 모본이 될 것을 권했던 겁니다. 루터와 전통이 결혼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칼빈과 개혁파 전통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본질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언약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 관계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칼빈주의 결혼관은 언약적 신의를 강조하였는데, 로마법의 영향으로 남성의 외도를 허용하던 혼인법 개정의 기폭제가 되었고, 지속적 언약불이행을 이유로 예외적이지만 이혼을 허용하는 법리의 등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성공회파는 결혼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차원을 중시하였는데,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을 교회와 국가를 구

성하는 일종의 작은 정치공동체로 이해하였으며 건강한 혼인과 가정은 곧 교회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혼과 가족의 영적 차원과 성경적 근거를 공통적으로 중시했던 기독교전통의 네 가지 결혼관(models of marriage)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고 서양혼인법도 이를 반영하게 되었지요.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면 결혼을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로 보는 계약 모델이 등장하는데, 결혼의 종교적 차원은 부정되고 혼인제도의 사회·경제적 중요성도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HLS: 오늘날 결혼과 가정의 문제는 그릇된 결혼관의 문제이며, 이러한 결혼관은 계몽주의의 산물인 계약 모델 위에서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Witte: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혼에는 계약적 측면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오늘날은 계몽주의 시대에도 강조되었던 결혼의 자연적 측면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계몽주의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종교와 전통을 거부하고 자아를 옥죄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던 사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거의 예외 없이 결혼을 근본이 되는 제도이며 건강한 정치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의 자연적 차원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결혼은 이성간 그리고 일부일처간 평생 지속되는 관계이어야 하고, 간통이나 매춘 혹은 축첩과 일부다처제 및 혼전성관계와 근친상간은 이성과 경험 및 실용주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자연의 질서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영장동물학과 진화인류학 등 여러 진화이론들이 무엇이 “자연적”인가에 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위 인간중의 심층구조(deep structure)는 번식을 위한 배타적 짝짓기를 지지하며, 성경의 창조질서인 두 육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지난 세기 진화과학이 발견한 후세 생산의 가장 적합(fittest)하고 유용한 최고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면서 무수한 혼외 출산아와 홀부모 아이들로 인한 비용이 국가의 몫으로 떠넘겨 졌습니다. 결혼으로 시작되는 친족구조가, 다음 세대의 좋은 삶을 준비했던 과거의 기반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과 약속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 국가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요컨대, 이전의 풍성하고 두터웠던 다차원적 결혼관 대신 결혼의 계약적 차원만을 강조하는 빈약하고 얇은 결혼관이 사람들의 인식과 법제도를 지배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혼이라기보다 결혼을 패러디한 것에 불과합니다.

HILLS: 미국 상황을 보면 결혼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연방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Witte: 결혼을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혹은 자율(autonomy)의 가치에 근거한 헌법적 기본권 문제로 접근하면 결혼제도의 특정한 일면, 즉 계약적 측면에만 지나친 무게를 실어주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을 사적 계약으로 보는 관점은 늘 있었지만, 언제나 다른 측면들과 균형을 이루며 혼인법제도의 다차원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계약 모델을 결혼 논의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것은 궁극에는 자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혼제도가 사회의 안녕과 복지와의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결혼을 지원하고 권장하며 그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국가와 정부에 있음에도 미국의 주정부들은 그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헌법적 선언으로 결혼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개별 주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창의적 대안들을 숙고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서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태로 결혼과 관련된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HILLS: 미국에서 결혼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사법부의 헌법 해석보다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주정부가 결혼을 권장하고 이혼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Witte: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결혼제도(covenant marriage)⁸⁾의 도입이고, 둘째는 혼인제도 관할권의 다변화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자율(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해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역사적 결혼관에 근거한 혼인법제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계약결혼을 원치 아니하는 커플들에게 최소한 언약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혼인제도의 관할권을 예컨대 교회나 종교공동체와 분담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승인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뒤,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세속의 혼인법이 아닌 소속공동체의 종교법이나 전통에 따라 결혼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인도와 남아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뿐 아니라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혼인·가족·성의 문제에 보다 책임 있는 법제도를 적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 있을 겁니다.

HILLS: 이제 질문의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답하시면서 “OO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교수님의 학문세계에 있어서 “혁명”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itte: “혁명”은 저의 학문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아마 훌륭한 학자 두 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멘토이신 해롤드 버만 교수님은, 로스쿨

7) 위티 교수와의 대담이 있는 지 얼마 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혼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2015.6.26. Obergefell v. Hodges).
8) 언약결혼은 대안적 혼인법제로서 계약(contract)모델에 근거하여 쉽게 결혼하고(easy in) 쉽게 이혼(easy out) 할 수 있는 현재의 혼인법제와는 달리, 결혼 전으로 당사자들이 결혼의 성격과 목적 및 책임에 관한 상담을 받도록 하며, 결혼은 평생 지속되는 관계임을 서약토록 하고, 특정된 근거를 증명할 때만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1997년 루이지애나를 시작으로 현재는 일리노스와 애리조나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참여도는 저조한 편인데, 위티 교수에 의하면 행정업무의 증가를 기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미온적 반응과 결혼관할권을 완전히 되가져오려는 가톨릭교회의 반대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스승이시며 감사하게도 에모리에서는 동료로 계셨던 분이지요. 20세기 법과 혁명이란 주제의 최고학자셨는데, 다탘머스대학교 학부생 시절 오이겐 로젠스톡-후시(Eugen Rosenstock-Huussy) 교수⁹⁾로부터 역사적 흐름을 바꿔 놓은 혁명적 시기에 주목하는 역사관을 배운 뒤 법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광범위한 법의 변혁을 초래한 주요 시기들을 12~13세기 교황혁명, 루터혁명, 17세기 영국혁명, 18세기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 그리고 볼셰비키 러시아혁명으로 정리하셨는데, 그러한 연구결과물은 법사학의 수작인 『법과 혁명 1,2권』으로 출간되었고, 그 외 여러 논문에서도 자신의 이론을 변호하셨지요. 저는 또한 카이퍼주의를 옹호·확장시켰던 20세기 칼빈주의 법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특히, 문명의 기저에는 근본동기 혹은 근본(법)이념이 있는데, 서양역사에서는 종교개혁, 교황혁명 및 프랑스혁명 등이 이러한 근본동기의 변화로 인한 문명교체의 변혁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학문 배경에는 이 두 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문명사의 거시적 변혁을 “혁명”으로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영구적으로 인식론적 변화를 초래한 흐름의 굽이를 “혁명”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고대와 성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2500~3000년간의 전통을 살펴보면 지속되는 사상과 제도 및 규범과 관습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곳곳에 방향이 바뀌는 굽이가 있다는 거지요. 영구적 변화를 초래한 변혁기 혹은 분수령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혼인과 가족관계 및 성의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뿐 아니라 궁극에는 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60~80년대를 성의 혁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법의 변화를 야기했지만 신학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교회가 성혁명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신학이 현실을 뒤쫓아가는 형국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에는 열려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저 ‘문화가 바뀌었으니깐..’라며 문화에 대한 교회와 신학의 역할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 점이 성혁명의 결과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HLS: 그렇다면 성혁명의 결과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질문을 좀 더 확장시키자면,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 혹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Witte: 여러분도 아다시피,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교회가 세상과 관계하는 5가지 방식을 소개하였고, 종교사회학자들과 실천신학자들도 다양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해서도 돈 브라우닝(Don Browning) 공저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Religion and the American Family Debate』(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second edition 2000)를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진정성 있게 세상 속에서 부르신 삶(calling)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9) 오이겐 로젠스톡-후시(1888-1973)는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계 독일인 사회(철)학자이다. 유년기에 개신교인이 되었으며 법학박사와 철학박사를 받은 후 대학에서 독일법사를 가르치던 중 나치의 등장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버드 대학교를 거쳐 다탘머스 대학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역사와 언어에 관한 독창적 이론들을 남겼다. 다탘머스로 옮긴 이유는 하버드 재직 시 그곳의 과학주의적 학문사조와 충돌하며 동료들의 반기독교적 성향을 비판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의 전통이며 이성과 경험에도 부합하는 결혼관·가족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에 저항함으로써 가능하다며 그리해야겠지요. 교회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세상과 문화의 airflow로 전락해 버리고 만니까요. 교회가 진정성 있게 부르신 삶을 산다는 것은 분리주의적 접근이나 현실 회피적 자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결혼과 가족이라는 근본적 제도에 관해서는 더욱 공적 논의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선의의 매개자요 개혁의 선지자요 현명한 공직관으로서 정치공동체에게 해악이 될 위험요인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참여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60~80년대의 세속화가설은 기독교와 여타의 신앙이 서서히 고사할 것이며 공공의 삶과 공적 심의과정에서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을 전제했었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상이 빗나갔다는 건데, 기독교와 종교는 사라지기를 거부했고 특히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을 괄호로 묶고 특히나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주장과 논의를 공적포럼에서 배제하려 했던 공적이성(public reason) 이론이 보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인식론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신학 없이(detheologized) 표백된 공적이성을 주장했던 존 롤스나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도 학문 후기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지요. 이제 크리스천들도 다시 대화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공적 논의 사안들에 대해 능력과 세밀함으로 무장하여 대화의 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단순한 주장들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변증학적 준비가 부족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타종교나 무종교뿐 아니라 반종교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이 기독교 전통의 지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불변하는 관점을 다른 언어로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나 자연법 이론이든 여타의 편의주의 논리이든,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동원하면서(이집트 문자해석의 실마리가 되었던) 로제타석 같은 것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HLS: 방금 언급하신 소위 공적이성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미리 아시고 답을 해 주셨네요. <월드뷰>를 읽으시는 많은 분들도 다원주의 시대이며 신앙에 적대적이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기독교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리라 봅니다. 교수님은 기독교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itte: 기독교학자와 비기독교학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핵심 사명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지혜의 청지기가 되어, 다음 세대에 전수되도록 보존하고 가르치며 자신이 속한 분야의 차세대 학자들을 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지식이라는 체인의 연결고리가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학자의 특권은 이러한 지식전통의 어느 부분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성경적 선례에 기반하여 진화하는 법제도의 전통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전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나 정치공동체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어떻게 공적 논의에 참여할 것인가는 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교육하고 강연하면서도 행동가의 역할은 소송변호사나 로비스트 또는 법률제정자들과 같은 전문가집단에게 맡기는 입장을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잘못된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제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접근방식을 택한 기독교법학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에 가담하거나 정부기관을 압박하고 구체적인 법률제정에 참여하면서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련분야의 지도자들과 접점을 만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힘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문투고와 TV 출연뿐 아니라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매일매일의 전투에 몸담는 것이지요. 어떠한 방식이든 기독교학자로서의 의무는 진정성 있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행동가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구체적 이슈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여 학자로서의 냉철한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별한 저의 소명은 결혼과 가족, 성,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장의 일들을 감당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HLS: 며칠 전 저희 교수들과 환담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에 연구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부터는 학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Witte: 제가 분별하려고 애쓰는 부분입니다. 신앙과 자유와 가족, 법과 정치와 사회에 관한 역사적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면 그 지혜를 정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안팎에 있는 자들이 더욱 분명하게 학문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지요. 지난 200여 년간 신앙인들은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경의 자리와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가르침을 간과하고 자신의 규범적 견해만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교만일 겁니다. 따라서 지난 3여 년간 사학자로서 저의 역할은 전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고(retrieve) 재구성(reconstruct)하여 그릇된 변화에 대한 신앙인인 우리의 논의가 두터워지게 함으로써 세상과 다시 접전(reengage)하며 바라건대 문화를 개혁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처방과 간명한 답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특성상 연구결과물을 세상에 내어놓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읽지 말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고도 몇 차례 하고 이전보다 규범적 성격이 강화된 논문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는 책들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결론적 사색 부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방향으로 더 나가라는 부르심인지 분별해야겠지요. 가끔씩 기독교 법철학(Christian jurisprudence)의 체계적 저술에 관심도 가져봅니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나 칼빈의 『기독교강요』,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혹은 롤스의 『사회정의론』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HLS: 끝으로, 오늘 대담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타인의 저서 중 교수님께서 특별히 평가하시는 세 권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Witte: 세 권만 추천하라니 어렵군요. (웃음)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저서인 『Justice: Rights and Wrongs』(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는 심오한 기독교적 비전으로 권리담론을 정의의 틀 안에서 근본적으로 재고찰한 수작입니다.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God, Locke, and Equality: Christian Foundations on Locke's Political Thought』(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도 중요한 저서입니다. 로크 정치사상의 기독교적 연원을 다루었던 학자들이 있지만, 이 책만큼 설득력 있는 작업을 하지는 못했지요. 로크는 영국 청교도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이를 깊이 있게 반영하면서 종교적·신학적으로 자신의 사상체계를 수립하였으나,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의 사상을 점점 세속화된 형태로 받아들였다. 그의 주장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결혼/가족에 관한 저서로는 돈 브라우닝(Don Browning)의 『Marriage and Modernization: How Globalization Threatens Marriage and What to Do about It』(Wm, B. Eerdmans Pub, 2003)을 추천합니다. 탁월한 사회과학자의 안목으로 결혼과 가족이라는 근본적 제도에 근대화와 세계화가 끼친 영향을 풀어내면서, 모든 문화권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는 풍성하고 진정한 기독교 사상의 그림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HLS: 27권이 되는 교수님의 저서가 국내 독자들에게 상세히 소개되길 바랍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존 위티의 좌담영상
바로가기

성도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하십니까

황인각 지음

적실한 예화, 논리적 글쓰기, 애끓는 마음이 담긴
우리 시대의 교회론!

“교회는 새로워질 희망이 없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황인각 지음 | A5변형 | 208면 | 10,000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없다?
바로 당신을 위한 책!

무릎 치며 읽는 두 권의 교회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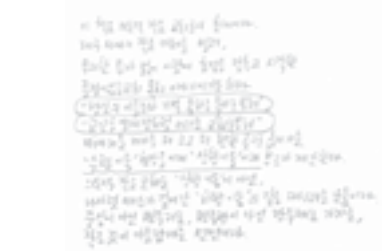
경쟁, 적자생존이 아닌,
연대, 공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생태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야 교회다”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라

정용성 지음 | A5변형 | 132면 | 10,000원

닭장 교회로부터



정용성 지음

도망가라

WORLDVIEW SPECTATL

착.한.소.비

착하다는 말을 너무 여기저기 쓴다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을 잘 보존하는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한' 소명입니다.

나뿐만 아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아끼고
세상을 구하는
착.한.소.비.

근검절약 좋죠.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소비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말로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시작해 봅시다.

정직하고도 행복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소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문화소비자**

—세속적 사회에서 기독교 문화의 소비를 말하다—

소비는 세계관의 반영

천교도주의에 입각한 신앙인은 소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근검과 절약에 따른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여기서 축적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에게 소비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기대할 뿐이다. 왜냐하면 소비에는 삶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사용한다는 의미 외에도 인간의 쾌락을 생성시키는 기능을 가진 까닭에 곧잘 이기적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일수록 인생에서 소비란 개념은 즐거움을 찾는 ‘소비주의’라는 이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생의 목적을 소비에 두고, 소비하기 위해 일하고 공부한다는 논리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미국의 소비주의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미셸 곤잘레스는 소비주의는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 대신 차지하고 즐기는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치 체계라고 주장한다.¹⁾ 그녀의 말에는 죽을 때까지 쇼핑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현대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소비는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정체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무슨 상품을 소비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소비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해는 무조건 소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비주의와 쇼핑 중독의 사회에서 구별된 소비를 권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

석되어야 한다. 경제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축된 소비활동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선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다. 공정무역과 같은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눈여겨보아야 하는 소비활동은 바로 문화상품이다.

기독교문화의 소비자는 누구인가?²⁾

지난 4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God is not Dead)가 개봉됐다. 이 영화는 2014년 봄, 미국에서 개봉되어 기독교영화로는 보기 드물게 전미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4주간이나 이름을 올렸다. 무신론자로 살아가도록 종용을 받는 대학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의 가치를 복돋우는 매우 흥미로운 영화였다.

이 영화를 수입한 배급사와 홍보사는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는 한편으로 기독교인 관객을 모으기 위해 기독교방송언론을 포함한 기독교대학과 교회 등을 접촉하며 입장권을 나눠주는 등 홍보에 힘을 쏟았다.

극동방송은 서울과 부산지사의 아트홀을 활용하여 시사회를 여는 한편 방송과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아주는 등 모처럼 극장에 걸린 기독교영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일어나도록 홍보에 도움을 주었다.

1) Gonzalez, Michelle A.(2011), *Shopping*, 홍병룡 역(2015), '쇼핑이 죄가 될 때', 서울: 포이에마, 24-25
2) 현대종교 2015년 5월호에 실린 필자의 글을 수정, 보완했다.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민일보는 부활절을 하루 앞둔 4월 4일자 미션란에 '부활, 영화로 증거한다'는 부제를 달아 매우 중요한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담당 기자는 이 영화가 어느 네티즌의 한 줄 평처럼 '크리스천에 의한, 크리스천을 위한, 크리스천의 영화'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평이었다. 게다가 4월 16일 개봉 당일에도 국민일보는 "영화 본 후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었다"는 제목을 달아 이 영화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성경 이해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모처럼 기독교 대중 영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복음주의적 영화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할리우드에서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 <노아>와 <엑소더스:신들과 왕들>은 모두 성경에서 모티브를 딴 대형영화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성경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나오는 바람에 기독교인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전례가 있다. <노아>의 방주에는 난데없이 두 발가인 뱀스가 하면 <엑소더스:신들과 왕들>의 주인공 모세는 지팡이 대신 칼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영화에 큰 기대를 걸고 극장을 찾은 그리스도인 관객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았다>는 달랐다. 대학 강의실에서 무신론 철학교수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신입생의 대결이란 흥미로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형태로 성경 이해나 교단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개봉 전 시사회에 나타난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부산 극동방송이 매달 개최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간에 거행된 시사회는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상영 중간에 박수를 받은 영화는 <신은 죽지 않았다>가 유일하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나타나서도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결코 블록버스터 급 영화 못지않았다.

그러나 막상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개봉 첫날 전국 68개의 상영관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취급을 받는 기독교영화로서는 비교적 적지 않은 극장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3·5회와 같은 방식의 '퐁당퐁당 상영'은 고사하고 하루에 한 번 상영하는 극장이 태반이었으니 말이다. 한국 영화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메가박스 코엑스몰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축에 속했다. 기독교인 관객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영 첫 주 금요일의 경우 저녁 7시와 10시 30분, 그리고 심야시간인 새벽 1시 15분 등 3회에 걸쳐 상영시간을 배정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토요일로 넘어가면서 상영시간은 오후 4시 25분과 새벽 1시 10분, 단 2회로 축소되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밀집해서 산다는 서울 강남구의 극장이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의 극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 하루 1, 2회가 고작이며 심지어 노원구에 있는 롯데시네마는 주일 아침 8시 20분에 한 회 상영만을 예정해 놓고 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상영시간대를 잡은 것일까? <신은 죽지 않았다>가 '기독교인을 위한 영화'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주일 오전 이른 시간에 상영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주일 오전은 전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바쁜 신앙생활 시간대에 영화를 보러 오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오지 말라는 뜻과도 같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신은 죽지 않았다>의 최종 관객수는 37,653명에 그쳤다. 2015년 여름의 화제작 <베테랑>이 불과 나흘 만에 2백만 명을 모은 일과는 비교할 수 없어도 한국의 한 대형교회 출석 교인수 만큼도 관객이 오지 않았다는 현실은 문화소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적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룩한 문화소비가 일으킨 기적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은 작가의 의도와 상관 없이 문화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술과 문화를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경제적 구조와 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이 있으며, 상품을 제작·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이 소비하지 않는 기독교문화상품은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재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까닭에 기독교문화상품 생산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2004년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자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인 '20세기 폭스사'는 기독교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자회사 '폭스 페이스(Fox Faith)'를 만들기도 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생산자의 가치관이 크게 개입되는 음악이나 서적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에서도 생산자는 소비자의 성향에 촉을 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출판사로 널리 알려진 김영사는 2008년부터 (주)김영사의 독립 임프린트로서 '포이에마'란 브랜드의 기독교서적 출판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헨리 나우웬을 비롯하여 필립 안시나 맥스 루케이도 목사 같은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뿐만 아니라 방선기, 김기석, 김영봉 같은 이름있는 한국 중견 목회자들의 책이 '포이에마'라는 브랜드 아래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김영사는 불교계에 불교문화를 발전시킨 불자출판사로 더욱 알려져 있다. <성철스님의 시봉일기>를 비롯한 불교서적을 100여 종 출판한 바 있고, 출판계의 미다스 손으로 김영사를 26년간 키워 온 박은주 사장은 30년간 금강경을

독송해 온 불교신자로 알려져 있다. 불교신문은 지난해 박은주 사장이 김영사 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그를 '30년간 금강경 2만독'을 회향한 CEO로 소개하였다. 불자 CEO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기독교브랜드를 지난 수년간 지켜온 이유는 단순하다. 출판시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소비자가 되는 까닭이다. 좋은 필자와 소비자가 있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미국의 출판구조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에게 기독교 출판사로 알려진 '존더반'(Zondervan Publishing)은 세계적 대형출판사인 '하퍼 콜린스'(Harper Collins)의 자회사이다. 그러나 '하퍼 콜린스' 또한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소유한 세계적인 미디어재벌 'News Corporation'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마치 세속적인 기업의 지혜를 빌려 거룩한 기독교문화를 창조하는 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소비자로서의 기독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경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막 14:3-9).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으로 당시 300명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더한 것에 견줄 수 있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목적에 과소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검소함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거룩한 소비였다. 기독교문화가 없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기독교문화를 누리려는 거룩한 소비자가 있는 곳에 기독교문화는 계속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

3) "불서 등 3천여 종 출간...박은주 김영사 대표 사퇴 출판계 '미다스 손', 불자 CEO로 불서출판 큰 기여", 불교신문 3017호, 2014년 6월 14일자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 드뷰 2015.8.15,일자)

착한 소비,
착한 수입,
공정무역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를 줄여야 하는가? 수입(import)을 줄이고 수출 증대에 매진해야 하는가? 정부는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특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내 소비 진작을 독려하였다. 가계부채가 약 1,100조원으로 GDP 규모의 75% 수준에 이르러 마치 폭탄의 뇌관처럼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가계 소비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외에서 소비하는 대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착한(?) 일인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일은 국부의 유출이고 수출하는 일은 애국적인가?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지출을 권장하고 있고, 개인과 기업은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상반된 경제활동이 모두 가능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유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지출의 부메랑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소비의 만족도(효용)가 가장 높은 방식을 선택한다. 즉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현재 소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비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단면적으로 보면 개인의 소비지출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의 순환구조를 고려하면 결과는 기대치와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소비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의 소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만일 경기 침체에 나의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를 줄인다면 다른 누군가의 소득도 줄어들고 다시 나의 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재 소비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미래 나의 소득에 미칠 영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일회성처럼 여겨지는 소비의 결과가 사실은 돌고

돌아 부메랑처럼 되 돌아온다. 착한(!) 소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한 일용할 양식?

우리는 본래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광야의 인생인데 “일용할” 분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일 년, 십 년을 살아가려고 하니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광야에서의 만나가 각 장막에서 개별적으로 주문한 배달 식품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개인의 입맛이 아니라 공동체적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체적”이라는 표현에는 집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 혼자만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무슨 일이든 아무렇게나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주의적 경제행위의 결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나의 일용할 양식에는 자연자원이나 다른 누군가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경제활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 중심으로만 순환되지도 않는다. 설령 내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관계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상대의 손실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경제적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따라 하루하루가 이어질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다.

움츠러드는 소비지출

굳이 청빈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근검절약은 청지기적 삶과 일치하고 소비지출의 확대는 기독교적 윤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근검절약도 맹목적이려면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소비지출도 낭비가 아니라면 유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량(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여 소비지출도 증가해야 다시 생산량의



김태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의 운영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기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소비지출을 부가가치 생산 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움츠러들게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의 차이가 작았으나 2009년 이후로는 소비지출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의 증가율)에 못 미치며 격차도 상대적으로 커진 양상을 보인다. 2014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3.3%였지만 최종 소비지출은 2.0% 증가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참조)

〈경제성장률과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최종 소비지출의 실질 증가율	4.4	5.2	5.3	2.2	1.3	4.3	2.7	2.2	2.2	2.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착한 수입

국제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벌려면 다른 나라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수입을 해서 소비해야 한다. 국내에서 소비지출이 없는 나의 소득 증대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면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입(import)도 증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5대 수출 상품인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제품들은 적어도 60% 이상의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투입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상품 수입액의 85%는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에 소요된다.

물론 모든 수입 제품이 생산적이지는 않다. 모피, 명품 의류나 가방, 보석 등은 고가의 최종 소비재로 수입된다. 착한 수입(import)이 되려면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에게 유익해야 한다. 이를테면, 2006년에 개봉된 영화 <Blood Diamond>에서 생생하게 연출되었듯이, 1999년 내전 중인 시에라리온에서 피로 물들여 생산된 다이아몬드라면 유럽 소비자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으로 즐겁게 소비할지라도 결코 착한 수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이 저렴하게 수입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대될 지라도 국내 농업이 대응하기 어렵게 되어 무너지게 된다면 이 또한 착한 수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한-중 FTA는 고추, 마늘, 배추 등 채소류와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시장개방에서 제외하였다. 착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수출 규모를 증가하여 적자를 누적시킨다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1990년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외환위기를 유발시킨 사례를 되새겨볼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52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해외에서 소득을 증대시킨 결과로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대한 수출 감소율(-10.6%)보다 수입 감소율(-18.3%)이 더 컸

던 결과이므로 흔히들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대 국가들의 수출 즉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장차 이는 다시 우리 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은 외화 유입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은 이익, 수입은 손실이라는 단순한 등식은 가능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 공정무역인가?

초등학교 축구팀과 대학교 축구팀이 동일한 규칙으로 경기를 한다면 심판이 초등학교 축구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오히려 경기규칙대로 융통성없이 판단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국제무역은 공급(생산)과 수요(소비)의 국제 거래이다. 무역 규칙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런데 무역의 결과로 편향적인 불균형을 가져오는 규칙과 절차가 지속된다면 과연 공정한 결과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 국제무역이론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비교우위”의 개념을 적용해 보자. 현재 커피나 바나나를 생산하는 A국가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B국가가 있는데, A국가는 자동차 생산 기술이 부족하고, B국가는 커피나 바나나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생산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동차 생산에 특화한다고 가정해 보자. 양국은 현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다른 상품은 수입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A국가는 B국가에 커피와 바나나를 수출하는 반면에 B국가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함으로써 스스로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무역패턴이 지속될 경우 A국가의 커피나 바나나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B국가의 자동차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B국가의 무역흑자가 증대되는 만큼 A국가의 무역적자는 심화될 것이다. 아무리 공정한 무역 절차와 규범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초등학교와 대학생의 구조적 차이처럼 A국과 B국의 산업구조의 차이는 당연한(!) 결과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과의 공정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공정무역의 취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커피나 바나나의 생산 원가는 인산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수출 판매가격은 더 인하되어야 결과의 공정성이 개선될 것인데, 자유무역 시장체제는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 가격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오히려 자동차 가격이 더욱 인상하고 커피나 바나나의 가격은 더욱 인하하는 역진적 현상이 나타난다.

착한 수입과 공정무역

공정무역이 착한 소비와 착한 수입(import)과 연계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커피 또는 바나나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영세한 규모로 시장 정보에서 동떨어진 채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편이다. 중간 도매상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

칭적인 여건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가격 협상을 부당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농가들은 빈곤상태에 묶여져 왔다. 중간 도매상의 부당한 약탈적 행위를 빗대어 사람들은 그들을 코요테(coyote)라고 부르게 되었다.

공정무역에 의해 수입된 커피와 바나나는 자유무역 체계에 의해 수입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된다. 왜 그런가? 원산지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매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소득을 높여 주어야만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작 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생산물을 경작해 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농가가 지속가능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가들의 조합을 통해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대량 직접 거래를 늘여가는 동시에 최종 소비가격도 인상시킴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착함과 공정을 넘어

착한 일은 확산되어야 한다. 공정한 거래는 당연히 발전되어야 한다. 착하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관건은 참여주체들이 착하고 공정하도록 성숙되어가는 일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선진국에도 사람이 있고 최빈 개발도상국에도 사람이 있다. 이들이 소비하는 방식과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그 결과는 글로벌화의 파라솔 아래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한 사람의 성취와 상실이 국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착함과 공정은 자신을 위한 삶의 양식으로도 유익하다. 경제는 사람과 사람이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결과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지속되려면 사람과 사람의 공정한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공정무역 커피가 저렴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되더라도 우리가 이따금 소비해야 생산 농가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소비 비결



산업혁명은 종전의 수공업 소량 생산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인류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한 생산 방식을 구축했고, 전쟁 이후 이를 통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대량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형성되어 소비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는 미덕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소비는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무엘슨(Paul Samuelson) 교수는 행복은 소비에 비례한다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행복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text{행복} = \text{소비} / \text{욕망}$$

일리 있는 표현이다. 분자를 보자. 과자 하나 보다는 둘을 먹을 때 좀 더 행복해진다. 같은 과자라도 더 비싼 고급 과자를 먹으면 행복도가 올라간다. 분모를 보면, 욕망이 지나치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욕망을 절제하면 행복도가 올라간다. 사무엘슨 교수는 행복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를 개선시키는 것은 경제학의 영역이며, 욕망을 절제시키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절약과 검소한 삶의 소비양식이 급속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70년대부터 깨지기 시작하였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중부들은 과소비로 자신들의 상승된 신분을 과시하였다. 소득이 못 미치는 일반인들도 모방소비로 따라가려 하였다. 명품에 대한 모조품이 성행하는 것은 이러한 소비 풍조에서 기인한다. 97년 말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소비가 잠시 주춤하더니,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의 반작용으로 보상 소비욕구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 않은 소비 열풍이 지배하고 있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여 행복도가 그냥 증가하지는 않는다. 지나친 과소비의 결과는 쇼핑중독증과 늘어난 빚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이다. 오히려 절제된 소비가 소비의 만족도를 증폭시킨다. 지혜로운 소비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노하우를 적어 본다.

지혜로운 소비 요령

물건을 구입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세일 때 구입? 공동구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리면, 그 물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 가정에 물건이 부족해서 문제인가, 아니면 남아돌아서 문제인가? 남아서 처치 곤란한 물건들이 많다. 이것들을 돌려쓰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갈 때,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해서 선물을 마련한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있는 새 물건들이 정말 많이 모인다. 양말, 치약, 비누, 우산 등 생필품이 몇 박스씩 나온다. 물건이 필요할 때는 얻을 때까지 기다려 보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교회에서 물건을 나



조성표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독교문연구회 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실행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계관연구소를 맡고 있다. 전공은 재무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2008), 『공학회계 (청람 2015)』를 저술하였다.

뉘 쓰기 위한 아나바다 장터나 바자회를 여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계속 기다려도 물건이 생기지 않으면 중고품을 구입한다.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이 잘사는 나라에서 누가 중고품을 쓰냐고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후진국일수록 중고품을 안 쓰고, 선진국일수록 중고품을 많이 사용한다. 미국 등 선진국 사람들은 주말마다 차고에 중고품을 벌여놓고 사고판다. 미국의 어느 중고품 가게의 구호인 "Find Treasures in Trash"처럼 쓰레기통에서 보물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중고품 구입도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을 사는 최후 수단으로 '한 달 규칙'을 적용한다. 사고 싶은 물건을 적어 놓고 한 달을 기다리는 규칙이다. 멋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사지 말고 이를 적어 놓고, 한 달 동안 기다린다. 그리고 한 달 뒤 살까 말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규칙은 충동 구매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 한 달 뒤에 가서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 둘 중 하나가 눈에 띌면 산다고 한다. 나 역시 평소에 극도로 절제하는 편인데도, 성급히 구매하고 후회하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

신용카드가 위험하다

성정적 경제 원리의 첫 단계는 부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살 집을 사기 위해 임시로 빚을 진 것은 그래도 좀 낫다. 그러나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다. 특히 먹고 입는데에 빚을 내는 소비성 빚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비성 빚의 가장 큰 주범이 신용카드이다. 신용카드는 가정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재정 파괴범이다. 지혜로운 신용카드 사용 원리는 무엇인가?

신용카드의 첫 번째 원리는 '없는 것이 최상이다.' 즉 신용카드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세련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고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기차표, 주유 등 용도를 정해 놓고 사용한다.

두 번째 원리는 돈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에는 카드로 빼서 쓰고 다음 달에 갚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생활비가 바닥나서 마음이 허전할 때, 신용카드로 외식을 하거나 쇼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한다. 먹고 즐거운 것은 한 순간이며, 한 달 후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 번째 원리는 연체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신용카드를 파기하라는 것이다. 연체 통지서는 '당신은 이 신용카드를 쓸 자격이 없다'라는 경고장이다. 불량카드를 못 쓰는 프라이팬에 폐식용유를 넣고 떨어뜨려 녹여 버린다. 불타는 카드를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 녹기 전에 나무젓가락으로 건져서 물로 씻은 다음 화장대 위에 붙여 놓고 두고두고 보면서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가전제품은 몇 년 사용할까?

최근 발표된 1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이 56,000달러로 28,000달러인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높다. 그런데 가전제품 값은 절반이다. 그러니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4배는 높은 셈이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차이가 나니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4배는 오래 써야 하지 않을까? 미국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한번 사면 몇 년을 쓰는지 살펴보자. TV를 사면 평균 11년을 사용하고, 세탁기 13년, 냉장고 15년, 가스레인지 18년이라고 한다. 이것은 평균치니까 더 오래 쓰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한 달이라도 더 오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미국 제품이야 튼튼하니까 그렇게 오래 쓰지요”라고 말한다. 요즘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썼으면 좋겠다.

불황에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소비를 많이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불황이라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무슨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소비 중에는 줄여야 할 소비가 있고, 늘려야 할 소비가 있다.

경제 불황 때 늘려야 할 소비는 영세민들이 파는 품목들이다. 야채, 떡, 김밥 같은 것들은 많이 사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서민 경제가 돌아간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기업들은 호황이든 불황이든 스스로 생존전략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대기업을 염려해서 과분하게 물건을 사줄 필요는 없다. 우리 재정만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 가정에서 특히 지출이 많은 항목이 있다. “교”자가 들어간 비용 세 가지 항목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교제비이다. 교제비에 속하는 외식비와 부조금을 줄여야 한다. 또 하나는, 교육비이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교통·통신비이다. 자동차 유지비,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요금 등을 줄여 보자. 이들은 외국에 비해 우리 가계에서 비중이 큰 항목들로 주의하여야 하는 지출들이다.

소비 이외의 행복

앞에서 경제학 교과서의 행복을 소비 나누기 욕망, 즉 “행복=소비/욕망”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런데 소비는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다. 다시 생각하여 볼 것은 행복이 소비에서만 오는가 하는 것이다. 돈 들지 않는 행복도 있다. 꽃 가꾸기, 등산 등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하여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돈 드는 행복도 있다. 구제, 자선, 봉사 활동 등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은 돈으로 사는 소비의 행복을 넘어서는 큰 행복이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들볶이고, 성적이 내려가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친척들 대소사로 분주하고, 이런 걱정들도 마음만 돌이키면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방영된 프로그램이 ‘전원일기’고,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초원의 집’이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은 별다른 사건도 없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아용다용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초원의 집』을 집필한 로라 잉겔스 와일더는 예수를 훌쩍 넘긴 나이에 이 소설을 썼다. 그녀가 이 소설을 쓴 동기는 식구들끼리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였다고 한다. 오늘 고달픈 일상이 마음만 바꾸면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고단한 삶에서의 일상의 행복을 기쁘게 누리 보자. 🍷

디제잉 워십,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1.

최근 한 대학생 선교단체의 오프닝 집회에서 EDM(Electronic Dance Music)을 연주한 공연으로 ‘디제잉 워십’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신나는 비트와 현란한 조명, 그리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사운드가 요즘 유행하는 대학축제나 흥대클럽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란한 사이키 조명과 신나는 비트에 맞춰 열광했고, 이후 ‘이러한 집회가 과연 예배일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일었다. 물론 해당 선교단체는 논란이 된 ‘디제잉 워십’이 예배가 아닌 인트로 성격의 오프닝 공연이었다고 문제를 확대해석하지 말기를 주문했지만, 예배인도자로 자처한 DJ 본인은 여전히 새로운 예배의 시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에 이번 논란은 여전히 ‘예배’와 관련된 핫이슈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제잉 워십’ 논란은 1980년대의 ‘드럼과 일렉트릭악기 사용’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 있었던 구자역목사의 트로트 찬양 논란 역시 이러한 맥락에 기초해 있다. 예배음악에서의 악기 사용과 장르활용의 문제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뜨거운 감자다. 사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성속 이원론’이라는 세계관적 주제가 자리하고 있다. 근본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세대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관념론적인 성속 이원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성(聖)과 속(俗)을 분리하고 영(靈)과 육(肉)을 나누는 관념론적인 개인 경건 위주의 신앙은 결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왜곡시켰다. 일찍이 한국 교회는 <낮은올타리>의 신상언 대표와 같이 문화에 대해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입장이었다. 대중문화는 세속적인 것이며 사탄이 장악한 것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문화를 경계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디제잉 워십 논란’에 대해 대체로 두 가지의 수용적인 입장이 있었다. 하나는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DJ의 입장으로, 세속적인 음악과 거룩한 음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세속문화를 기독교가 적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탄에게 빼앗긴 음악이라는 주장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니 타락한 문화를 구속하고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만 가치중립적인 세속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히려 기독교를 갱신하고 개혁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EDM을 즐기면서 그것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CCM 그룹 <좋은씨앗>의 멤버였고 미국

리버티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정 목사의 입장이다. 이 입장은 많은 문화사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음악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사탄에게 빼앗긴 음악을 구속하여 원래의 목적에 따라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문화변혁적 사명이다. ‘디제잉 워십’은 장르에 불과할 뿐이며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에 대해서 무분별한 비난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디제잉 워십 논란에서 EDM의 수용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대부분의 입장은 음악과 장르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며 가치중립적이라는 생각이다. 세대 간의 차이나,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단지 표현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되어 있을 뿐 어떠한 가치개입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어른 세대가 클래식을 좋아한다면 젊은 세대는 EDM을 즐길 뿐이다. 어떤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헤비메탈을 좋아한다.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다양성의 문제일 뿐이다. 일정 부분은 이 말이 맞다. 기본적으로 장르는 형식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연 장르가 형식적 의미만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아무데나 사용해도 되는 걸까? 특정한 음악장르와 그 장르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에로전대 에로문학(Erotica)은 문학의 특정 장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녀 간의 애정과 성적인 사랑을 표현한 문학이다. 에로문학이라는 장르는 인간 심연의 사랑과 애정을 표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EDM 역시 클럽이나 파티, 축제 등 엔터테인먼트의

장에서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분출하기 위해 고안된 장르이다. 그러하기에 그에 적합한 표현방식, 신나는 비트와 현란한 사이키 조명, 감정을 고조시키는 강력한 전자사운드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장르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형식이나 그 가운데 장르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한 가지 더, 패션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수영할 때 비키니를 입는다. 하지만 운동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지 않으며 비키니를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 운동복과 비키니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며 가치판단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패션의 종류(장르)가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DM 역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으로 사용될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배는 엄위하신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지식에 근거해 경건한 감정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거룩한 정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고양시키는 방식은 예배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더욱이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장르의 음악이 인간 심성의 타락적 요소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과연 ‘그냥 음악’이고 ‘그냥 장르’일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구조와 그 구조가 지향하는 방향이 결코 분리되지 않은 채 우리 곁에 다가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음악이라는 구조가 구성하는 멜로디와 화음, 리듬은 가치중립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순수하고



윤성현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총무로 사역 중이며, 합동신학대학원(M. Div.)과 고려신학대학원(기독교 윤리학, S.T.M)을 졸업하고 지금은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Ph. D.)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윤리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 현대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와 기독교 윤리 연구소를 준비 중에 있다.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할 수도 있지만 탐욕적인 인간의 관능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음악 역시 인간의 정신적 산물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EDM을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형식으로서의 장르사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EDM이라는 장르가 추구하는 목적도 문제가 되지만 EDM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 문화 역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을 단순히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순진해 빠진(naive) 생각이다. 음악은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메시지와 내용, 삶의 정황, 문화를 포함한다. EDM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의 세속적인 음악 사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러한 문화와 삶의 정황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클럽과 파티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넘어서서 경건하게 고양된 거룩한 정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단지 그 장르에 '익숙'하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찬양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장르에 대한 옛 경험이 올바른 찬양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3.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EDM의 예배 음악 사용이 은사주의적인 이머징 교회의 출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포스트 기독교와 포스트모던 상황 속에서 모더니티를 극복하고자 시도된 대안교회로서의 이머징 교회는 철저하게 성속의 분리를 거부하며 '온 삶(whole life) 영성'을 추구했다. 모더니티 교회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고 관념론적인 이원론에 천착한 것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다. 이러한 시도는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예배를 추구하면서 의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고대 영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몸'을 예배 이벤트 속으로 가져 오면서 EDM과 같은 대중문화를 예배의 한 요소로 수용한 것이다. 이머징 교회에서 대중문화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중요한 좌소가 되었고, 클럽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며, 춤이라는 열광적인 방식은 하나님을 '몸'으로서 예배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예배의 장소는 불신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머징 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는 체험이 이끄는 기독교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전략으로서의 이머징 교회는 과거 구도자 중심의 예배보다 더 공격적인 형태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시켜 줄 체험들을 추구한다. 은사주의적인 이머징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들은 격식이 없는 예배를 추구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예배 및 음악 스타일과의 통합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예배방식을 창조하려 한다. 하지만 성속 분리와 관념론적 이원론을 지나치게 거부한 나머지 이들은 말씀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하는 오류에 빠졌으며 감각적 체험을 우선한 나머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세속적인 문화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우를 범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무시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마이클 호튼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소비자 중심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현대 복음주의의 문제점은 바로 인간 중심적인 접근에 있다. 즉, 자아중심의 기독교다. 데이빗 웰스가 지적했듯이 특히나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대중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자아도취와 효용성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은 사라지고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자기기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신(新) 사사시대인 셈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 성경 계시가 실종된 현실에서 기독교는 대중문화와 심리학으로 대체되었고 인간 본위의 체험 중심적인 신앙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만 집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존중과 자기 만족의 복음으로 전락시켰다.

4.

과거 한국 교회의 성숙 이원론적인 경건주의 신앙은 오늘날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성숙 이원론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 성숙 이원론이 지나간 자리에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될 세속주의라는 괴물이 오히려 싸움의 대상이다.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려는 분리주의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인 세계관은 더 이상 한국 교회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개별적이거나 마이너리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한국 교회는 자아 중심적이며 현세적 가치를 강조하는 세속주의와 맞닥뜨리고 있다. EDM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바로 이러한 세속주의와 상관이 있다. 바른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상실한 한국 교회에는 이미 세속화의 물결이 몰려와 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경건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잘못된 성숙 이원론을 극복해야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과 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숙 이원론을 거부하고 문화변혁을 외치기는 쉽지 않다. 사탄이 장악한 세속문화를 십자가로 구속하지는 문화변혁적 사명은 일견 그 동기와 진정성 차원에서 공감할 만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문화변혁을 외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오히려 선한 구조와 그릇된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여 죄악된 요소를 쉽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화변혁의 노력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 내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 혼합주의로 화(化)하는 형국이다. 하나님

께서 세상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는 늘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했듯이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세상 속에서의 문화적 소명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화변혁적 사명에 앞서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둘러싸고 있는 죄와의 반립(反立, antithesis)에 대해 더욱 민감해야 한다. 자칫 무분별한 문화변혁의 시도가 세상의 죄악된 요소를 허용하여,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속의 가치를 들여오는 세속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예술과 창조성의 회복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던 프란시스 웨퍼의 아들 프랭키 웨퍼는 그리스도인이 예술 활동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주요 요소는 바로 '죄'라고 하였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인간의 모든 예술 활동의 핵심에는 바로 '성결'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디제잉 워십 논란'과 함께 야기된 예배 음악에 대한 우리의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예배로서의 모든 삶 가운데 '죄'와 '성결'에 관한 고민이 필수적이라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예배자의 진정성이라는 명분만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세속적인 음악 요소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다. 음악 역시 죄와 타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하나의 장르라는 형식논리를 넘어 디제잉 워십을 둘러싼 사회, 문화, 종교적 차원 등을 각각도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인가? 디제잉 워십을 둘러싼 단순한 생각들과 EDM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은 자칫 교회를 허무는 심각한 여우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엢 3:17-19



컬처 메이킹 문화 창조자의 소명을 찾아서

저자 앤디 크라우치 | 역자 박지은 | IVP | 정가 18,000원
원제 Culture making: recovering our creative calling

문화를 비난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문화를 비평하고, 모방하고, 소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문화 창조란 단순히 문화 인공물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행위다. 저자는 우선 문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린 다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라는 주제를 탐색하는 한편, 문화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명이 무엇인지, 특히 공동체에서 문화 창조 행위를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쇼핑이 죄가 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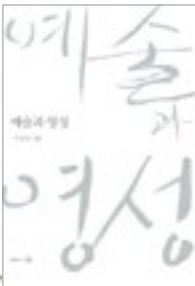
저자 미셸 곤잘레스 | 역자 홍병룡 | 포이에마 | 정가 9,800원 | 원제 Shopping

그리스도인이 쇼핑 문화 속에 살면서도 기독교 가치관을 충실히 견지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은 죽을 때까지 쇼핑하고 쇼핑하기 위해 살아가는 미국식 소비자주의나, 쇼핑은 죄악이고 쇼핑으로 구입한 물품은 오염되었다고 보는 기독교 반물질주의의 양극단을 피해 쇼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쇼핑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내는 지표일 수 있다. 일상생활은 세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그물망의 토대이다. 저자는 그러한 일상과 구조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기독교의 정의와 연대는 그리스도인이 돈을 지출하는 방식에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또한 마땅히 주어야 한다.

예술과 영성

저자 서성록 | 예서원 | 정가 20,000원

이 책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펼쳐가는 37명의 기독교 작가를 소개한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엄선된 작가들을 조명한 일종의 작가론집으로 신앙과 삶이 어떻게 예술 속에서 창조적으로 만나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다. 모두 여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상의 성화'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슬픔의 엄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만하며 가치 있는 곳임을 알려 준다. '생명의 강가'에서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통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영원한 소망'에서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분향인 천성으로 떠나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의 영주 거주자가 아닌 나그네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신앙의 신비에서 비롯된 '총일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부활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이 중심축을 이룬다. 그런가 하면 '상징과 은유'는 종교적이 아닌 곳에서 벗어난 악기, 포도, 식물 등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마음의 삶'은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마음에 비춘 풍경을 형상화하는 작가들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대상을 신선하고 흥미롭게 풀이함으로써 마치 찬 물로 세면(洗面)할 때의 개운함처럼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해 준다. 이들의 작품은 세상을 특별하게 들여다보고 읽게 해 주며 캄캄한 세상에서 참 희망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저산소증의 기억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이슬람 전사의 탄생



저산소증의 기억

수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포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 기쁨에 시간이 빨리 가기를 소원했었다. 세포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놀기도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즐거웠다. 적어도 그 때까지는...

신선한 산소가 엄마의 자궁과 내가 있던 나팔관 속으로 솔솔~ 불어올 때면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저 앞에 있던 세포는 앞으로 심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계속 움직이는 게 좋단다. 심장이 되면 평생 박동하는 세포가 되어 살아있음의 최전선에 서고 싶단다. 내 뒤에 있던 세포는 뇌 세포가 되고 싶어 했다. 원래부터 생각하기를 좋아했던 이 친구는 뇌의 전두엽 세포가 되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전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가 하면 저 끝에 있던 조금 특이하게 생긴 친구는 생식세포가 되어 자손을 이어 주는, 자기 말로는 역사를 이어 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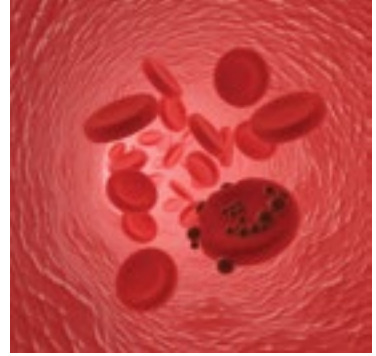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아홉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관으로든 분화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심장세포로, 뇌 세포로, 생식세포로... 원한다면 몸의 어떤 기관으로든 분화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최근에야 우리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우리가 미래 국가 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한다.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운 생명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인데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다.


신선한 산소 바람을 맞으며 서로가 꿈꾸는 미래를 나누던,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막연하지만 그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세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곤 했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다. 세포의 수가 늘어날수록 산소의 양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산소 부족이 우리의 중심을 강타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 공급처가 필요하다. 엄마의 자궁은 더 이상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줄 만한 여력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있다가는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 억울하다. 이제야 겨우 꿈꾸던 미래를 향해 기지개를 켜올 뿐인데, 여기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수정되고 겨우 며칠 지난 상태라 엄마도, 아빠도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임신 진단을 받으려면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 내 삶은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걸까.

절망과 어둠의 벼랑 끝에서 미세한 생명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혁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에서 생겨났다. 벼랑 끝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도 오히려 편안해지는 때가 있다. 내가 그랬다.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는구나 생각하던 중 하나의 질문이 구름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도 내가 이런 질문을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나에게는 이 질문이 생명의 혁신을 이루는 질문이 되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는 몸의 어떤 기관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만능의 세포이다. 따라서 내 몸에 부족한 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만능의 세포이다. 그러므로 이 저산소증을 나는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런 정체성의 확인은 이제 스스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 냈다.

이제 나는 평생 산소를 간직하고 운반하는 혈액세포와 폐를 만드는 세포들로 변환될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그들이 꿈꾸던 대로 심장, 뇌, 생식세포의 길을 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섭리된 꿈이기에...

돌이켜보니 저산소증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산소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혈액도, 혈관도, 심장도, 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혈액이 되고픈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자극했고, 그 유전자는 줄기세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어 혈액과 혈관으로 자라나게 했으며, 폐와 심장이 생겨나게 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내 인생 초기의 저산소증은 그 어떤 은혜와도 견줄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였다. 지금도 상황이 어렵고 답답할 때면 그때를 추억한다. 내 삶의 빛이 되어 준 저산소증의 기억 말이다. 



서울교육대학원, (주)에듀드 공동주최 / 주한영국대사관 공식 후원

2015년 제6회 SKEC 영어글쓰기대회 초등부 저학년 · 고학년 국제부 부문

전체 수상자 40명 중 9명 수상 (저학년부 20명 중 7명)

입학설명회

9월 16일(수)
오후 4시
/ 장소: SICA
(서울 양재동)

“교육이란 소중한 아이들의 인격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교육은 환경이며, 습관 그리고 훈련입니다. 방향 곧 철학이 빠진 교육은 방향기를 잃은 배처럼 표류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한 방향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고전교육을 만나보십시오.”

이중언어유·초·중·고등 교육기관, 기독교적 고전교육



SICA 신입생 모집

www.sicakorea.org



문법 단계(초등)

전 과목의 기초 개념과
지식 교육



논리 단계(중등)

문법 단계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
논증, 변론을 통한 토론 교육



수사 단계(고등)

문법, 논리를 바탕으로 실독력 있는
연설과 에세이 통합 교육

- SICA는 역사 중심으로 통합, 연결하는 커리큘럼을 사용합니다.
- SICA는 교과서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책을 사용합니다.
- SICA는 국어, 천자문, 영어, 라틴어 교육을 통해 동서양의 언어와 사고하는 법을 배웁니다.

서울 양재캠퍼스: 유·초·중등(통학), 여주캠퍼스: 고등(기숙, 2016년 8월 개교 예정)

입학상담 02) 557-7710 / info@sicakorea.org



SICA
www.sicakorea.org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이슬람 전사의 탄생 정의길 저 | 한겨레출판사

현대 이슬람주의의 탄생에서 IS의 탄생을 천천히 살피다 보면 왜 중동의 현대사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분쟁,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분쟁, 독재정권 등. 여러 겹의 갈등이 영킨 실타레 같은 중동 현대사를 이해하게 되면 그 어떤 구도도 선-악의 틀로 간단히 해석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Thanksgiving's Think

변질 간의 전쟁, 이슬람 전쟁

본질과 변질은 어떻게 구분될까?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에는 '진정한 힘'이 없다. 스스로를 살아내는 생명력이 없고, 기생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에게 이단종교가 그런 것 같다. 본질적이든 변질된 것이든, 종교에는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따르지 않고 변질된다면? '악', '어둠'의 에너지도 '선', '밝음'과 방향만 다를 뿐 내재된 힘은 엄청나다. 그리고 그 힘은 왜곡된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적으로 여긴다.

'중동 국가의 이슬람교'와 '미국식 기독교'는 본질과 변질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 역사를 보자면, 악을 주워 먹으며 커간 변질의 힘이 더 많이 나타난다. 전쟁의 역사에 본질의 것이 얼마나 있던가? 변질은 변질된 상대를 부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밀어내지만 결국 자신들이 악으로 여기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극단에 있는 변질은 닮았다. 코드가 맞는다.

그러나 본질에 충실한 종교는 기생할 극단이 굳이 필요 없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빛을 뿜으며 선한 목적을 향해 나가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해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은 자에게 힘을 공급해 준다. 본질은 변질과 다른 의미의 친화력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라면 변질을 만날 때 힘으로 꺾으려 하지 않고, 한없는 사랑의 분별의 빛을 주어 삶의 목적을 찾게 해 준다. 우린 너무도 쉽게 '종교 간의 전쟁'이란 말을 쓰지만, 알고 보면 그것들은 모두 '변질과 변질 사이의 전쟁'들이었다.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는 본질과 변질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을 살피는 것이다.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식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시리즈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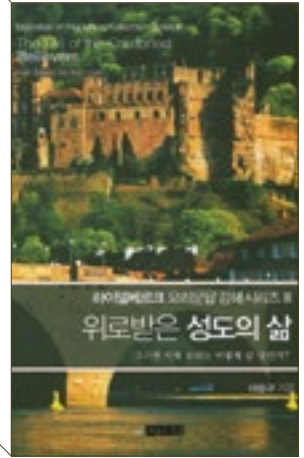
위로받은 성도의 삶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통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있으면 되지 신조나 요리문답이 왜 필요한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 둘 중에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는 권위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만 아는 것이다. 이승구 박사는 이런 태도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신조에 표현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였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철저하게, 성경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과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금번에 이승구 박사의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강해집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위로 받은 성도의 삶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도전한다며, 그에 대해 성경적이면서도 개혁신학적인 답을 제시하였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인 프란시스 슈퍼(Francis Schaeffer)의 기념비적 작품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에서도 같은 말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프란시스 슈퍼로 일컬어지는 이승구 박사의 요리문답 강해는 이 시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해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해를 다루고 있다.



안명준 중앙대학교졸업, 함동신학대학원(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University of Pretoria(Ph.D.), (현)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원장, 저서와 공저(성경적 조직신학, 칼빈의 해석학과 신학의 유산, 칼빈의 성경해석학, 신학적 해석학 상, 하, 칼빈신학 2009,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칼빈과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칼빈신학해설, 최근의 칼빈연구, 기독교 알기)



책의 첫 부분인 1부에서는 ‘위로 받은 성도들의 삶: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 모두 3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 삶의 구조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중생에서 나오는 선행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다룬다. 이 세가지는 이 책의 핵심 사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한 후, 제2부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위로 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우리가 마주치는 사건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구 박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 받은 성도들의 자연스런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는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경우에 대하여 두가지를 설명한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방종의 삶을 사는 반율법주의자에 대해 경고한 후, 두 번째로 공로로 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한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자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철저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만 의존하며 산다고 한다. 주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이다. 둘째로 구주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게 된다. 성령님께 의존하여 살게 되면 영적인 선 (spiritual good)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런 영적인 선행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영적인 선행은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영적인 선행은 전도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참된 성도는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저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여기서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는 것이다. 옛 사람으로는 죽은 이들이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영광에 “이

미” 참여하고 있으나, 그 온전한 영광이 다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기에 “아직 아니”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활과 영화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III』가 소중한 안내서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저자는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로서 그의 성경 해석적 지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신학적 설명이 뛰어나다. 보통 교리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면 성경적 해석이 약하기 쉬운데, 이 책은 성경적 근거에 항상 기초를 두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정신을 가지고 정통 개혁신학의 관점 속에서 교리문답을 강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강해의 풍부한 내용을 위해 칼빈의 『기독교강요』나 칼빈의 주석, B. S. Childs, Keil and Delitzsch,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필립 멜랑히톤의 『신학총론』, 미국 CRC 교단의 새로운 번역을 비교하고, 외국의 권위있는 주석뿐만 아니라 한국의 박윤선 박사과 김홍전 박사, 최낙재 교수의 글등을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학문적 통찰은 요리문답 강해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해석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주제에 조직신학적으로 견고한 강해와 더불어 저자 특유의 성경신학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G. Vos의 관점에서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4 계명 주일 문제를 다룰 때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G. Vos의 성경신학적 관점 중 종말론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네 번째, 삶의 구체적 정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슈들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양적 효 문제, 기독교 가정, 사회적 생명운동, 혼전 동거와 계약 결혼, 동성애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3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될 하나의 작고 아름다운 개혁파 교의학이라고 불리우길 바란다는 저자의 바람에 동의 표하면서 서평을 맺는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7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6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650,000		기타급여	637,000
	일반회비	6,225,000		소계	4,237,000
	기관후원금	3,4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649,000		사무실관리비	464,000
	학술지원금	2,000,000		통신비	175,570
	연구지원금	6,000,000		우편료	393,090
	VIEW후원금	1,000,000		소모품비	533,460
	CTC후원금	310,000		비품	177,810
	기타후원금	1,000,000		식비	460,750
		복리후생비		612,580	
		퇴직연금		293,240	
		교육비		45,900	
		회의비		122,470	
		회계용역비		330,000	
		기타		390,784	
		소계	4,549,654		
			연구지원비	연구지원금	6,000,000
				CTC후원금	318,900
				VIEW후원금	300,000
				학술지원금	4,000,000
	소계	22,244,000		소계	10,618,900
기타수입	포인트환급	3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예수금	319,190		발송비	743,210
	소계	349,190		소계	3,243,21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2,890,000
	학술지심사비	1,010,000		학술지 발송비	644,860
	학술지게재료	300,000		학술지심사료	1,190,000
	학회기타수입	0		학회기타	100,000
	소계	1,410,000		소계	4,824,860
당월 수입액	24,003,190	당월 지출액	27,473,624		
전월 이월액	39,871,268	차월 이월액	36,400,834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7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소계	1,900,000
	소계	1,55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990,000	
		인쇄비		2,062,500	
		소계		3,512,5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도서판매비	37,600		복리후생비	289,100
	기타수입	165,560		퇴직연금	137,760
				관리비	30,000
				회계용역비	330,000
				소모품비	98,000
				식비	11,000
				소계	1,170,860
			기타	세금	49,740
				기타	2,500
	소계	2,703,160	소계	52,24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기타수입	3,700,000	미디어아카데미	어린이영상캠프	1,101,60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기타	13,500
	소계	3,700,000		소계	1,115,100
당월 수입액	7,953,160	당월 지출액	7,750,700		
전월 이월액	42,566,634	차월 이월액	42,769,094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희, 김교은, 김봉현, 김삿별, 김삿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은, 김진호, 김태영,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원근, 박지민, 생명의강, 성관수, 안윤주, 영음사, 유성욱, 이수형,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5천 공승근, 구성태,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미정, 김방민, 김상욱, 김성은, 김성찬, 김승태,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은, 김재우, 김태영, 김태운, 김항아, 김현경,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규, 박승룡, 박찬규,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현,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하, 이수인, 이영홍,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수연, 임천석, 임영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충국, 정봉현, 정한국, 조사무엘, 조은아, 조인진, 지미경,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동찬, 윤해경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나실, 김성욱, 김은민, 김재우, 박대희, 박현빈, 방성기, 이병주, 이세호, 이은수, 이지은,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우주, 강효식,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길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화, 김교은,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래, 김상범, 김성경, 김성규, 김상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세연, 김세중, 김소라, 김수진, 김승남,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숙, 김영안,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천,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국, 김주영, 김준희, 김준홍, 김지민,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준, 김태진, 김태호, 김만일, 김혁,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섭, 김홍재,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재환,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두선, 박복배, 박승호, 박승호, 박시은, 박애란, 박용성, 박원근,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해경, 박희주, 배세원, 배세원, 배이론,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영승, 변희지,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영규, 손하은, 손하나,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지영, 신진성,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규, 신호기, 신효영, 심명섭,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희, 안영준, 양성진, 양예찬, 양행모, 양해원, 양해원, 양희석, 연혜민, 오경옥, 오성호, 오은별, 오지선, 옥재호,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선덕,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하원, 유희진, 윤영실, 윤성찬, 윤숙자, 윤천석, 이갑두, 이강, 이경직, 이계실,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규, 이길형, 이덕영,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열, 이병수, 이봉근, 이성규, 이상기, 이상우, 이상수, 이상환, 이상훈, 이상수, 이상영, 이시영, 이언규, 이연희, 이요한, 이윤홍, 이원배, 이원재, 이원준, 이원희,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종환,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학성, 이하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미림, 임수현, 임우진, 임일택, 임재평, 임지연, 임춘택, 임현영,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영철, 장우경, 장용훈, 장은혜, 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동일, 전영희, 전성규, 전중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성은,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상, 조은함, 조이수, 조주영, 조주영, 조지현,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 영, 최영수, 최원영, 최종민, 최진우, 최한빈, 최현정, 최혜경,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한진, 한인관,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경화, 홍구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은, 황성신, 황세환, 황희서, 황인경, 황대연, 황혜숙, 황해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조영숙, 최동원 2만 김대훈, 강용관, 김경호, 김수홍, 김용식, 김인숙, 김장희, 노용환, 배성민, 변우진, 석지원,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인아, 임영, 장경근, 조창근, 한진영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요한, 문석운, 문준호, 박신현, 박영주, 서성복, 오익석, 오한나, 우병훈, 이근호, 이예진, 이은실, 임희욱, 장수영, 조무성,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김세광, 최성두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박문식, 박영철,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운식, 현은자 8만 권경아 10만 김미영, 김익원, 김태환,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이기섭, 전광식 12만 김성목, 조애래, 최정일 2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36만 김경호 100만 권성윤 101만 이경숙 130만 홍영식 607만 최태연

계 17,794,000원

기관후원금

-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축교회, 다은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천리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나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연악교회, 예성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환돌교회
-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 30만 100주년기념교회
- 50만 사랑의교회, 주님의십자가교회
- 100만 엘버전

계 4,4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엘버전,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오하우스코리아

“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정정공고]

하반기 해외 석학 세미나가 취소되었습니다

8월 28일에 예정되었던 바키대학교 부총장 Gwen Dewey의 세미나가 취소되었습니다. 알찬 세미나를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12기 모집]

1인 미디어 시대,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될 미디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언론과 방송을 향한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교육기간 : 10월 17일(토) ~ 2016년 1월 30일(토) 예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 접수마감 : 2015년 10월 2일 (금) 18:00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cmca.or.kr)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후 선발
- 교육비 : 외부기관 후원으로 수업료 무료 / 등록금 350,000원
- 문의: 홍정석 간사 Tel. 02-745-7237
E-mail. cmca@worldview.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모집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각 학문분야별 기독교적 학문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2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융복합과 기독교학문"을 주제로 하여 11월 7일(토)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신진학자 및 기독교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년 11월 7일(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
- 주제 융복합과 기독교 학문
- 일정 발표신청 논문모집 마감 : 2015. 9.21(월) /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 꼭 기일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 약속을 지키는 학술대회 문화의 정착과 복합학문 성격을 띤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에 제한이 있습니다.
- ※ 학회주제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 우선권을 갖습니다.
- ※ 등록비는 당일 접수할 예정이며, 20,000원(프로시딩 제작 및 만찬포함)/ 학부 및 대학원생은 10,000원 입니다.
- 일정 02-3272-4967 (담당: 신호영 간사)

[보고] 2015년 임원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8월 21일, 1박2일로 강원도 홍천에서 2015년 임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고 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임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원소식] 양인평 이사님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동역회의 부이사장이신 양인평 고문(법무법인 로고스)께서 제 10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평신도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2008년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을 설립, 교단과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킴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9월 4일(금)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있습니다.

[임원소식] 웨슬리 Wentworth 팔순기념 출판기념회

동역회의 오랜 동역자, 고문이신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IVP 고문)의 팔순을 기념하여 IVP에서 <문서 선 교사 웨슬리 Wentworth>를 출간하며 기념식을 갖습니다. 9월 19일(토) 4시에정이며 장소 및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시작(마감 10/2)	16
2		17
3		18
4	[임원] 양인평 이사님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	19 [임원] 웨슬리 Wentworth 팔순기념 출판기념회
5		20
6		21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논문발표 신청마감
7		22
8		23
9		24
10		25 "월드뷰" 10월호 발행 대학원생 모임
11		26
12	국민일보 와이드먼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27 추석
13		28
14		29
15		30 신앙과 학문 제20권 3호 발행

- 9/1(화)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시작 (홈페이지 cmca.or.kr)
- 9/12(토) 국민일보 와이드먼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 9/21(월)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논문발표 신청마감
- 9/25(금) 월드뷰 10월호 발행
- 9/25(금) 대학원생 모임 (오후 5시 30분, 삼일교회 C관 2층)
- 9/30(수) 신앙과 학문 제20권 3호 발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부르심에 부단히 애쓰다 생각하며 말이지.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닐까?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닐까?
무작정 열심히 달립니다.

내 손을 거쳐간 수많은 일들,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그렇게 시간이 쌓여
그 일만큼은, 누구 못지않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 없이는 어렵다는 교만한 속삭임도,
또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두 다 네 덕분이야 달콤한 칭찬도,

겉으로는 손사래 치지만 나만한 사람은 없단 생각도 듭니다.
나만큼 헌신하면 대단한 거라 으스대기도 하고요.
그러다 중요한 나와는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불쾌하기도 하고,
내 말과 생각, 지난 경험이 무시하나 싶어 약도 오릅니다.

언젠가부터 기쁨도 감사도 저 멀리 사라진 듯 보입니다.
다만 내 뉘를 했으니 족하다, 무사히 마쳤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되뇌입니다.
난 오늘도 당연하게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었나요?

순례자에게는 가야 할 곳이,
우리에게는 달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결코 뭔가를 이루거나 열심히 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음과 침묵에도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내가 하는 것 모두를 내려놓는다 해도 목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열심히 그저 달리지만 말구요,
오늘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_John MacKay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We envision a life uniting faith and scholarship
within the Christian World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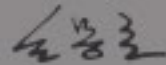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임무는 철저히 세속화된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지성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과 학문활동을 이끌어 가며 동시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한국 교계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학문, 교육, 경제, 정치, 예술, 스포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적 세계관이 교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이 중요한 임무는 결코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따로 수행하기 어렵고 한 두 사람의 재능과 열심만으로 이룩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바쳐보려는 선한 마음들이 자신들의 지식, 지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종합하여 더욱 정교하고 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더욱 설득력 있게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장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세계관동역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후원회원으로 가입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QR 코드로
바로 가입하러가기



잘못된 주소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환자의 손자)에게 시내에 가서 약을 지어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심부름 간 놈이 돌아오지 않아 화가 좀 났다.

신음하는 아버지를 들여다보면서 혼자서 하는 말:
"이자식이 죽었나? 살았나?"